numbers

NO. 216

2023. 11. 21.

주요 내용

1. [한국교회 전도사 사역 실태]
   전도사 사례비, 아르바이트 수입보다 적어!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한국인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인식
   2) 한국인의 검찰 인식

*사진의 출처는 안양감리교회

목회데이터연구소
MINISTRY DATA INSTITUTE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전도사 사례비, 아르바이트 수입보다 적어!

넘버즈에서 담임목사의 인식 및 실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다룬 적이 있지만 교회 곳곳 현장에서 수고하는 숨은 일꾼 '전도사'의 사역 실태 전반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 번도 다루지 못했다. 한국교회 전망과 전략을 담은 '한국교회 트렌드 2024'에서는 '어시스턴스 포비아'라는 주제로 부교역자(부목사, 전도사)의 사역 기피 현상을 다루었는데 서적에서는 미처 사용하지 못한 전도사의 사역과 진로, 고민을 담은 데이터를 모아 이번 넘버즈를 구성했다.

전도사들이 사역 시 겪는 가장 큰 고민과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로 나타났고, 현재 사역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적은 사례비'를 꼽았지만, 담임목사는 사례비 외 '사명감 부족'을 주원인으로 생각해 서로 간의 인식 차이를 보였다. 전도사의 사례비는 장학금 포함하여 월평균 108만 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전도사의 수입 118만 원보다 적었다.

이번 〈넘버즈 216호〉로 전도사들이 처한 현실과 삶을 이해하고, 이들 사역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안을 교회가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24 한국교회 트렌드 조사 : 전도사 조사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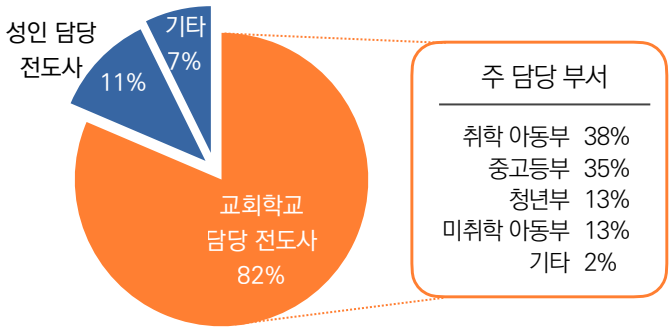
구 분	내용
조사 대상	전국의 전도사
조사 방법	목회데이터연구소「넘버즈」회원과 '전도사닷컴' 회원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조사
표본 규모	550명(유효표본)
표본 추출 방법	편의추출(Convenience Sampling)
조사 기간	2023년 5월 12일 ~ 5월 31일(20일간)
조사 의뢰 기관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01 [전도사 사역 실태]
전도사 1주일에 3.6일 교회 사역!

- 전도사의 1주일간 교회 사역일 수에 관해 물은 결과, 평균 3.6일로 일주일 중 절반 가량 교회 사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주 담당 부서는 대부분(82%)이 '교회학교 담당'이었고, 담당 부서로는 '초등학교 담당'이 가장 많았다.

[그림] 1주일간 교회 사역일 수 (전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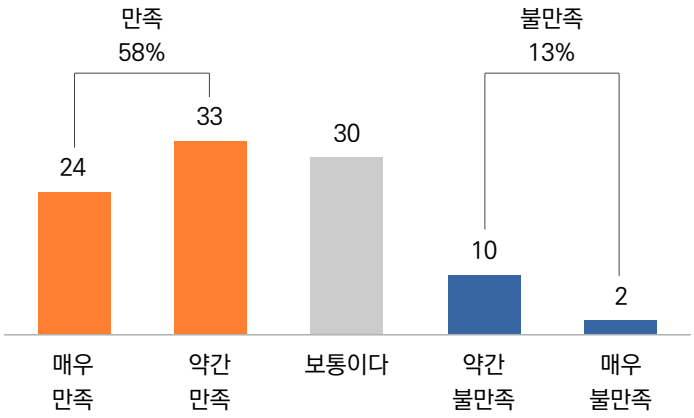
[그림] 현재 주 담당 부서 (전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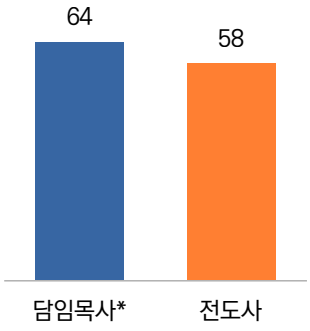
◎ '사역에 만족한다', 전도사 10명 중 6명에 불과!

- 전도사에게 사역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평가토록 한 결과, '만족' 58%, '보통' 30%, '불만족' 13%로 나타나 '사역에 만족한다'는 전도사는 10명 중 6명 정도로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전도사의 사역 만족도는 담임목사의 목회 만족도(64%)보다는 다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전도사 사역 만족도** (전도사, %)



[그림] 사역 만족도 비교***
('매우+약간' 만족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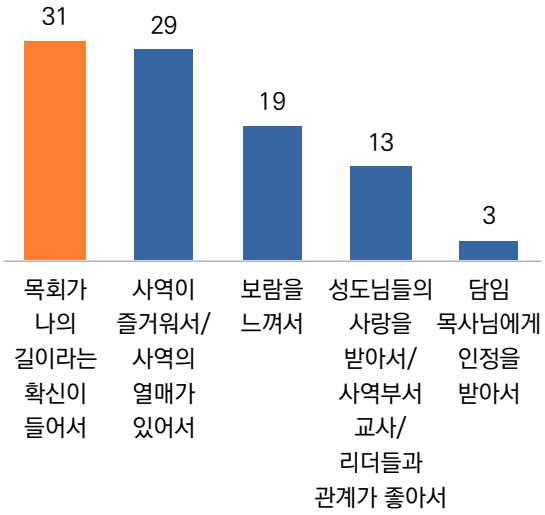


*자료 출처: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23.06. (한국교회 개신교 담임목사 802명, 온라인 조사, 2023.01.31.~02.12.)
**합계가 100%가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5점 척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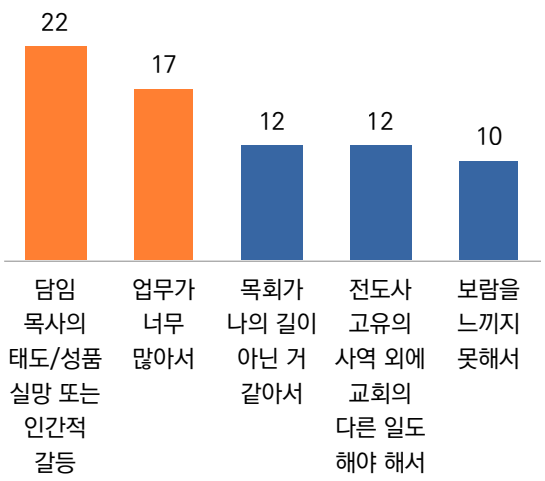
◎ 전도사 사역 불만족 이유, '담임목사 태도/성품'과 '많은 업무량'!

- 전도사 사역 만족과 불만족 이유를 각각 해당 응답자에게 물었다. '사역 만족 이유'는 '목회가 나의 길이라는 확신(31%)'과 '사역의 즐거움(29%)' 요인이 가장 컸고, '불만족 이유'는 '담임목사의 태도/성품 실망, 인간적 갈등(22%)'을 가장 높게 응답했다. 그 외에 '업무가 너무 많아서', '목회가 나의 길이 아닌 것 같아서' 등의 순으로 불만족 이유를 들었다.
-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이면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현재 전도사 그룹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그림] 전도사 사역 만족 이유
(사역 만족 전도사,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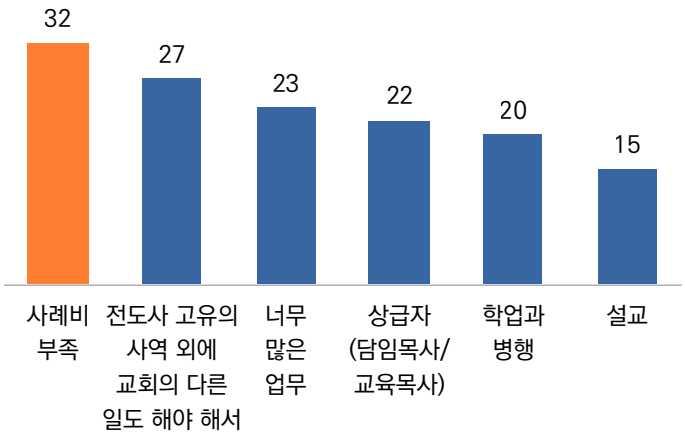
[그림] 전도사 사역 불만족 이유
(사역 불만족 전도사, 상위 5위, %)



◎ 전도사 사역 어려움, '사례비 부족'!

- 전도사 사역 시 가장 어려운 점을 물은 결과 '사례비 부족(3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도사에게 진로/소명보다 오히려 경제적인 문제가 더 큰 어려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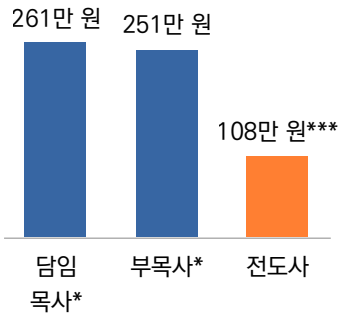
[그림] 전도사 사역의 어려움 (전도사, 1+2순위, 상위 6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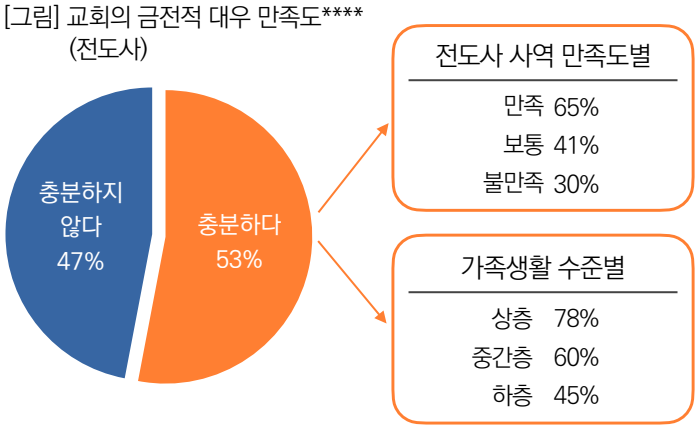
◎ 전도사 사례비, 최저임금 수준!

- 전도사가 교회로부터 받는 월평균 사례비는 어느 정도일까? 108만 원(사례비 101만 원+장학금 7만 원)**으로 전도사의 사역 시간을 주 3.5일, 하루 8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 수준이다.
- 교회의 금전적 대우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전도사 절반 이상(53%)이 '충분하다'(매우+약간)고 응답했는데, 전도사 사역 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의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교회의 금전적 대우를 충분하다고 응답했다.

[그림] 교회의 월평균 사례비



[그림] 교회의 금전적 대우 만족도**** (전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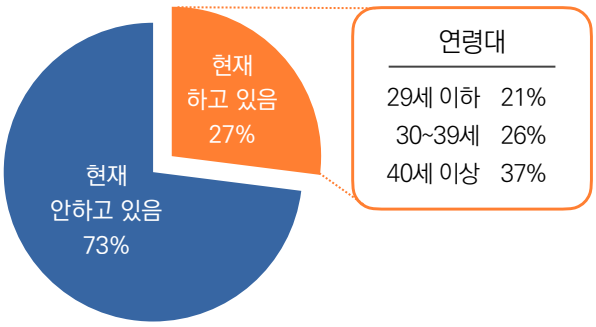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조사(목회자 대상)', 2023.06.19.(전국 교회 담임목사 500명, 부목사 365명, 모바일조사, 지앤컴리서치, 2023.05.12.~05.31.)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연간 장학금을 월 평균으로 나눈 값임
***사례비+장학금
****4점 척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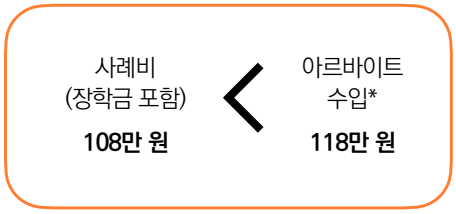
◎ 전도사 사례비, 아르바이트 수입보다 적어!

- 현재 전도사 사역 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 전도사 4명 중 1명 이상(27%)이 '하고 있음'으로 나타났는데, 아르바이트 수행 비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높았다.
- 월평균 아르바이트 수입은 118만 원으로 앞서 언급한 월평균 사례비 108만 원보다 10만 원가량 높았다. 사례비보다 아르바이트 수입이 더 높은 셈이다.

[그림] 전도사 사역 외 아르바이트 수행 여부 (전도사)



[그림] 전도사 사례비 vs 아르바이트 수입 (전도사, 월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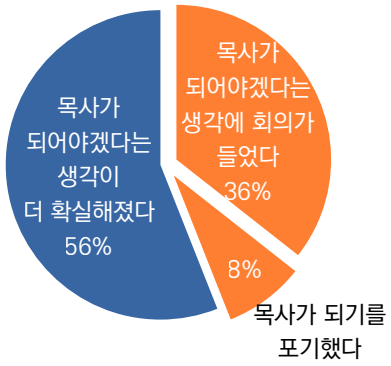


*아르바이트 하는 전도사 기준

◎ 전도사 44%, '전도사 생활이 목사 되겠다는 생각에 회의/포기하게 해'!

- 전도사 사역은 목회 여부을 결정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전도사의 56%는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더 확실해졌다'고 응답했으나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회의가 들거나(36%)', '포기했다(8%)'는 답변도 44%로 절반 가까이 되었다.
- 상당수의 전도사들에게서 전도사 생활이 오히려 향후 목회의 길을 선택하는데 방해된다는 이번 조사 결과는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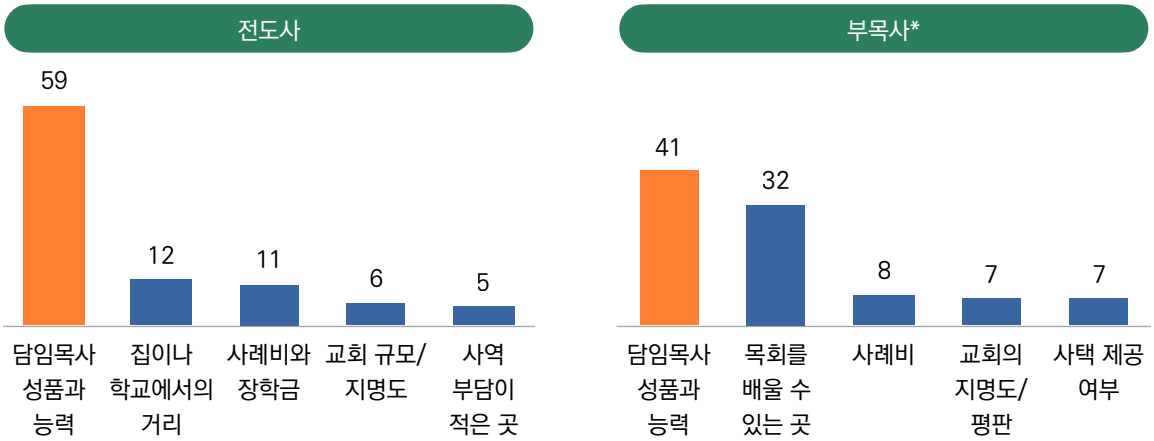
[그림] 전도사 사역이 목회 의지에 미치는 영향 (전도사)



◎ 사역 교회 선택 시 중요한 것, '사례비'보다 '담임목사 성품과 능력'!

- 사역하는 교회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은 무엇일까? 적은 사례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도사는 '담임목사 성품과 능력(59%)'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이는 부목사 대상 조사 결과도 동일했는데, 부교역자가 사역지를 선택하는데 '돈'보다는 '담임목사(상급자)의 성품'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그림] 사역지 선택 시 중요 고려 요인 (상위 5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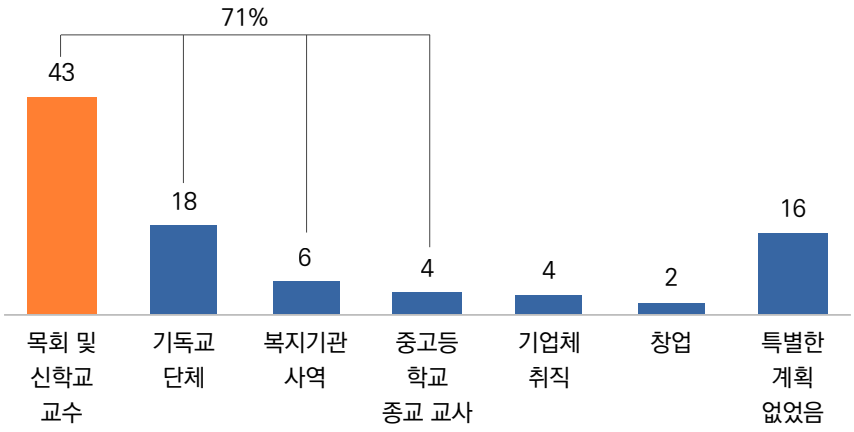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조사(목회자 대상)', 2023.06.19.(전국 교회 담임목사 500명, 부목사 365명, 모바일조사, 지앤컴리서치, 2023.05.12.~05.31.)
**기타 응답 제외

02 [전도사의 진로와 계획]
신학 시작했을 때 처음 계획, '목회/신학교 교수' 43%!

- 신학을 시작했을 때 어떤 진로를 생각했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목회 및 신학교 교수'가 4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기독교 단체' 18%, '특별한 계획 없었음' 16% 등의 순이었다. 목회자를 포함한 기독교 사역과 관련된 진로를 계획한 비율은 71%로 조사돼 10명 중 3명은 사역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신학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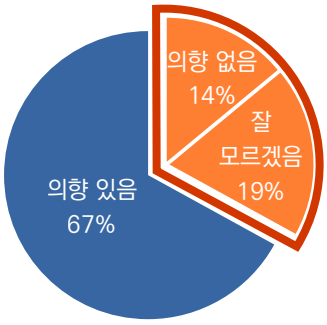
[그림] 신학 시작할 때 계획 진로 (전도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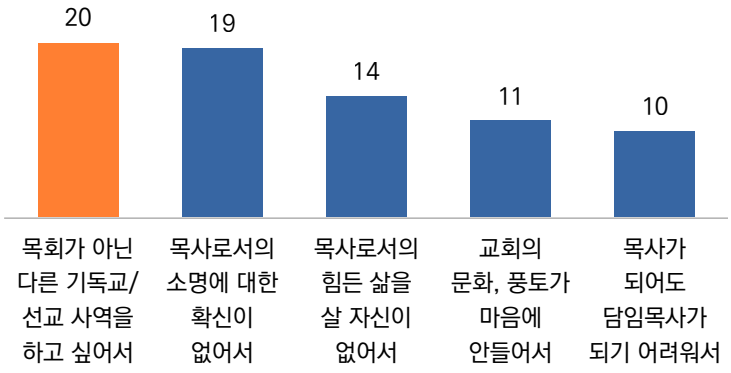
◎ 전도사 3명 중 1명, 목사의 길 확신 없어!

- 전도사에게 목사 안수 의향에 관해 물은 결과, 67%가 '의향 있다'고 응답했고 '잘 모르겠음' 19%, '의향 없다' 14% 순이었다. 전도사 3명 중 1명(33%)은 목사 안수를 원하지 않거나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 목사 안수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목회가 아닌 다른 기독교/선교 사역을 하고 싶어서(20%)'와 '목사로서의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19%)'를 가장 높게 꼽았고, 이어 '목사로서 힘든 삶을 살 자신이 없어서(14%)', '교회의 문화가 마음에 안 들어서(11%)' 등의 순이었다.

[그림] 목사 안수 의향 (전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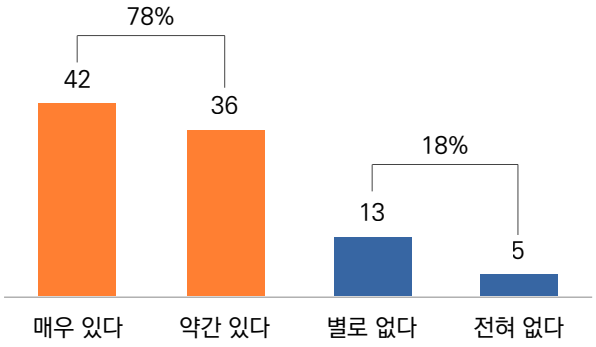
[그림] 목사 안수 의향 없는 이유 (목사 안수 의향 없는 전도사, 상위 5위, %)



◎ 목사 안수 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이중직 할 수 있다, 78%!

- 목사 안수 의향자에게 목사 안수 이후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이중직을 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있다' 78%, '없다' 18%로 나타나, 목사 안수를 희망하고 있는 전도사 10명 중 8명은 '이중직 가능성'에 대해 열어두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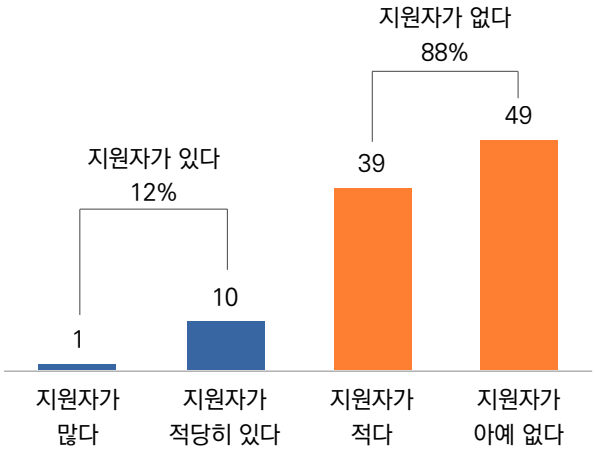
[그림] 목사 안수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울 시 이중직 의향 (목사 안수 의향 전도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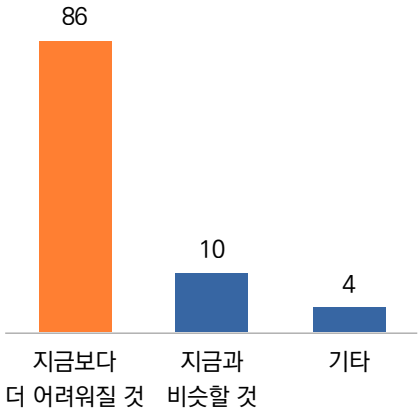
03 [전도사의 사역 기피] 담임목사 대다수, '전도사 지원자도 없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

- 한국교회의 부교역자 사역 기피 현상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담임목사를 대상으로 교육전도사 지원자 상황(수)에 관해 물었더니 담임목사 대다수(88%)가 '지원자가 없다(아예 없다+적다)'고 응답했고, 그중 '지원자가 아예 없다'는 응답도 절반(49%)에 육박해 현재 한국교회가 심각한 전도사 구인난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또한, 부교역자(전도사, 부목사) 청빙에 대해 대다수의 담임목사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림] 교육전도사 지원자 수 (담임목사, %)



[그림] 향후 부교역자 청빙 전망 (담임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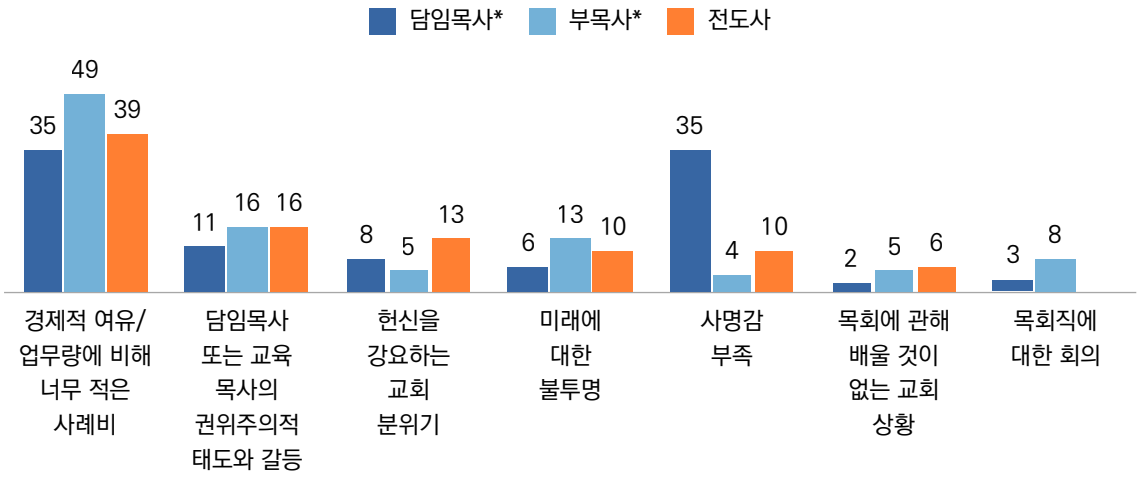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조사 결과 보고서', 2023.06.19.(담임목사 500명, 모바일 조사, 2023.05.12.~05.31.)

◎ 사역 기피 이유, 전도사 '적은 사례비' vs 담임목사 '사명감 부족'!

- 부교역자가 교회 사역을 기피하는 이유에 관해 물었다. 그 결과, 전도사(39%)와 부목사(49%)는 '경제적 여유/적은 사례비'를 가장 높게 응답했지만 '담임목사'는 경제적 이유 외 '사명감 부족(35%)'을 높게 선택해 담임목사와 부교역자 간 큰 인식 차이를 보였다.

[그림] 부교역자 사역 기피 현상 증가한 이유 (사역 기피 의견 동의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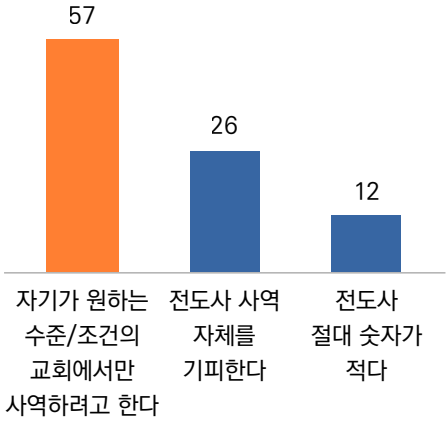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조사 결과 보고서', 2023.06.19.(담임목사 500명, 모바일 조사, 2023.05.12.~05.31.)
** '기타'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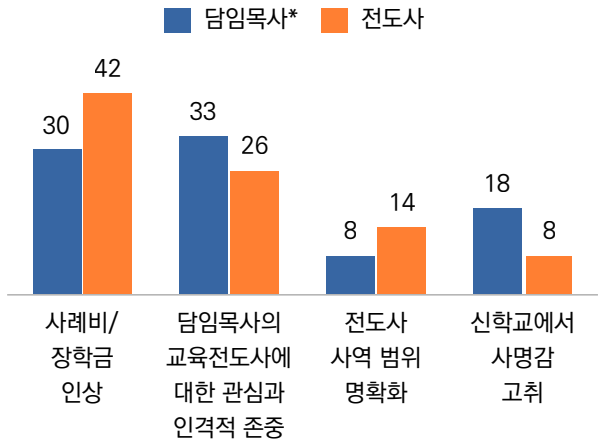
◎ 교육전도사 구인난 해결 방안, '사례비 인상'과 함께 '인격적 존중'!

- 교육전도사를 구하기 어려워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전도사' 당사자들에게 물었다. 그 결과, '전도사' 절반 이상(57%)이 '자기가 원하는 수준/조건의 교회에서만 사역하려고 함'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전도사 사역 자체를 기피한다'는 사역 자체에 대한 거부도 26%나 되었다.
- 그렇다면 전도사 구인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전도사의 경우 '사례비/장학금 인상(42%)'을, '담임목사'는 '전도사에 대한 관심과 존중(33%)'을 각각 1순위로 응답했다.

[그림] 교육전도사 구인난 발생 이유 (전도사, %)



[그림] 교육전도사 구인난 해결 방법 (상위 4위, %)



*자료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조사 결과 보고서', 2023.06.19.(담임목사 500명, 모바일 조사, 2023.05.12.~05.31.)

시사점

'전도사 구하기 어렵다', '신학생들이 전도사를 하지 않는다'. 중소형 교회 담임목사들은 교육 전도사 구하기가 어렵다고 이구동성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담임목사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전도사 사례비가 편의점 알바보다 못 해서', '사명감이 부족해서' 등을 이야기한다. 요약하면 전도사들이 사명감이 부족해서 돈만 밝힌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만 들으면 이런 전도사들이 앞으로 한국교회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커진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교회의 일방적 입장일 뿐이다. 실제 사역을 이른바 '기피'하는 전도사들의 생각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넘버즈」가 다룬 '전도사 사역 실태'는 큰 의미가 있다.

전도사는 두 가지 지위를 갖는다. 하나는 사역자의 신분이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다음 세대' 문제이다. 교회학교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담임목사들은 목회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다음 세대 교육 문제'라고 언급하였다.[1] 교회학교 학생이 줄어들고 교회 학교 교육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환경적 요인이 크지만, 교육 전도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학교 교육이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명확하다. 그러나 전도사들에 대한 대우나 관심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먼저 이번 조사에서 전도사들의 월평균 사례비는 장학금을 포함하여 108만 원이었는데, 평균 사역일수 주 3.5일에 하루 8시간 사역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약 9,600원꼴이다. 2023년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인데 이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즉 전도사들은 최저임금 대우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담임목사와의 관계이다. 전도사 대부분은 MZ세대에 속한다.[2] 독립적이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MZ세대 전도사들은 담임목사 혹은 교육목사의 권위주의적, 비합리적 태도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번 조사에서 전도사 사역의 불만족 이유로 '담임목사와의 태도와 성품에 실망 또는 인간적 갈등'(22%)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담임목사 혹은 교육목사가 일방적 지시와 무례한 태도를 보일 때 전도사들이 사역할 의욕은 꺾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지위는 견습생의 신분이다. 전도사는 사역을 통해 목회를 배우면서 목회자로서의 자격을 갖춰간다. 이들에게 담임목사는 롤(Role) 모델이다. 담임목사의 영성, 인간적 성품, 목회 태도, 목회 방법 등을 가까이서 보고 배운다. 전도사가 대형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담임목사로부터 배울 것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전도사가 사역 교회를 선택하는 제1의 조건으로 '담임목사의 성품과 능력'이 꼽힌 것은 전도사들이 담임목사를 '롤 모델'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전도사의 사역 동기를 어떻게 고취할 수 있을까? 우선은 이 세대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 담임목사는 과거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전도사를 바라보지 말고 전도사 세대의 생각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이미 사회는 MZ세대에 맞는 인사 관리를 한 지 오래되었다. 둘째는 사례비를 적정하게 책정해야 한다. 전도사 가운데 기혼자는 교회 사례비로 생활해야 하므로 사례비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교인이 줄어들고 교회 헌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도사 사례비 인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담임목사의 성품과 사역에 대한 목회적 태도이다. 적은 사례비를 받더라도 즐겁게 사역할 수 있고 담임목사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면 전도사들은 기쁘게 사역할 것이다.

한국교회에 '다음 세대'가 중요한 것처럼 '목회의 다음 세대'인 전도사의 성장도 중요하다. 전도사가 하기에 따라서 교회 학교, 우리 아이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전도사가 어떻게 크느냐에 따라 한국 교회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토양을 교회가 만듦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기 기대한다.

---

1) 목회데이터연구소, '슬기로운 목회생활:2023 목회 인식', 「넘버즈」 211호, 2023. 10. 17
2) MZ세대에 대해서는, 목회데이터연구소, 'Z세대 리포트'm 「넘버즈」 212호, 2023. 10. 24 참고할 것
기독 2030세대에 대해서는 다음 글들을 참고할 것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청년의 사회 의식' 「넘버즈」 83호, 2021. 02. 05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청년의 신앙 의식' 「넘버즈」 84호, 2021. 02. 1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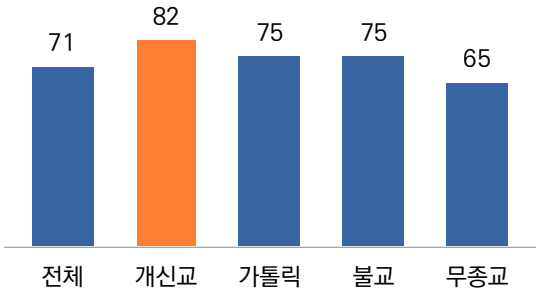
1.[한국인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인식]

2.[한국인의 검찰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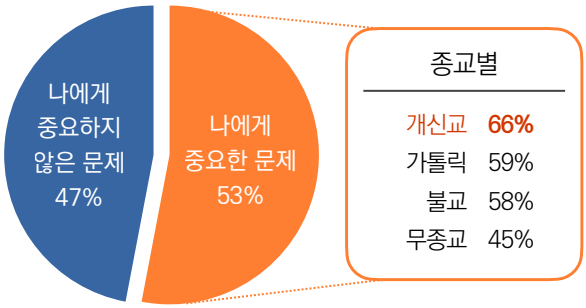
개신교인 3명 중 2명,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나에게 중요한 문제!

- 2023년 10월 2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규모 침공을 감행하고, 이에 이스라엘이 전면전으로 대응하면서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이 1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이 전쟁과 관련한 우리 국민의 최근 인식 조사가 발표돼 살펴보고자 한다.
-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에 대한 관심 여부를 물은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관심이 있다'(매우+관심 있는 편)고 응답했고, 종교별로는 무종교인보다는 종교인, 종교인 중에서는 개신교인이 가장 관심도가 높았다.
- 이번에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본인에게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이는지 여부를 물었더니 '나에게 중요한 문제(53%)'라는 인식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47%)'라는 인식보다 약간 높았다. 이 역시 개신교인인 경우 타 종교(무종교인 포함) 대비 '중요한 문제'란 인식이 강했다.

[그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심도
('매우+관심 있는 편' 비율**, %)



[그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중요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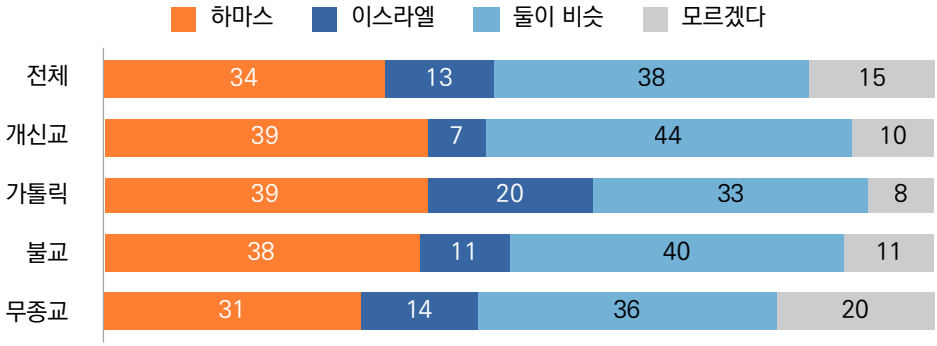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 인식', 2023.11.08.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000명, 웹조사, 2023.10.27.~10.30.)
**4점 척도임
***4점 척도로 '매우+어느 정도 중요한 문제', '전혀+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 비율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둘 다 책임 있지만 하마스 책임 더 커!

-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보는지를 물은 결과, '이스라엘과 하마스 둘이 비슷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가운데 '하마스 책임' 34%, '이스라엘 책임' 13%로 나타나 하마스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좀 더 우세했다.
- '이스라엘 책임' 응답률에서는 특히 개신교인과 가톨릭인 간 인식 차이가 컸다. 가톨릭인은 20%가 '이스라엘 책임이 더 크다'고 인식한 반면 개신교인은 7%에 불과해 개신교인의 친이스라엘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그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책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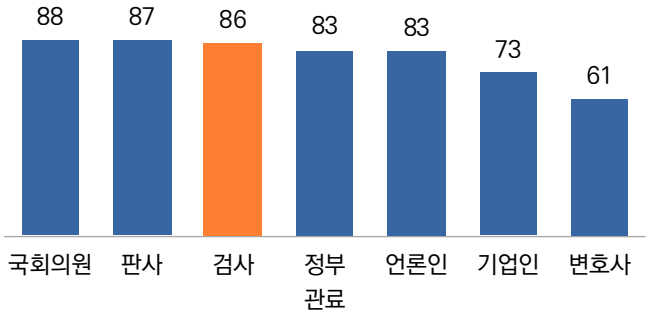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 인식', 2023.11.08.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000명, 웹조사, 2023.10.27.~1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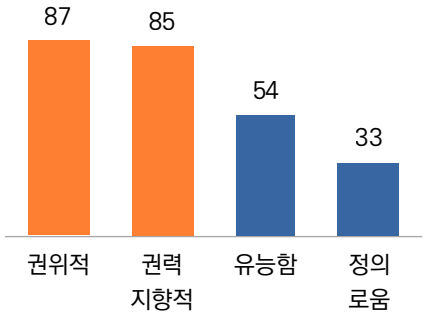
대한민국 검찰 이미지, '권위적, 권력 지향적'!

- 최근 시사IN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검찰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우리 사회 각 전문직 중 사회적 영향력이 큰 직종'이 무엇인지를 물은 결과, '검사'는 국회의원, 판사와 비슷한 1위권의 영향력을 가진 직종으로 응답됐다.
- 한편 '검찰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할까? 권위적, 권력 지향적, 유능함, 정의로움의 4가지 단어를 제시한 후 선택하도록 한 결과, 대다수가 '권위적(87%)', '권력 지향적(85%)'을 꼽아 부정적 이미지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직종은?
('영향력이 매우 크다+큰 편이다' 비율, 상위 7위, %)



[그림] 검찰의 이미지 (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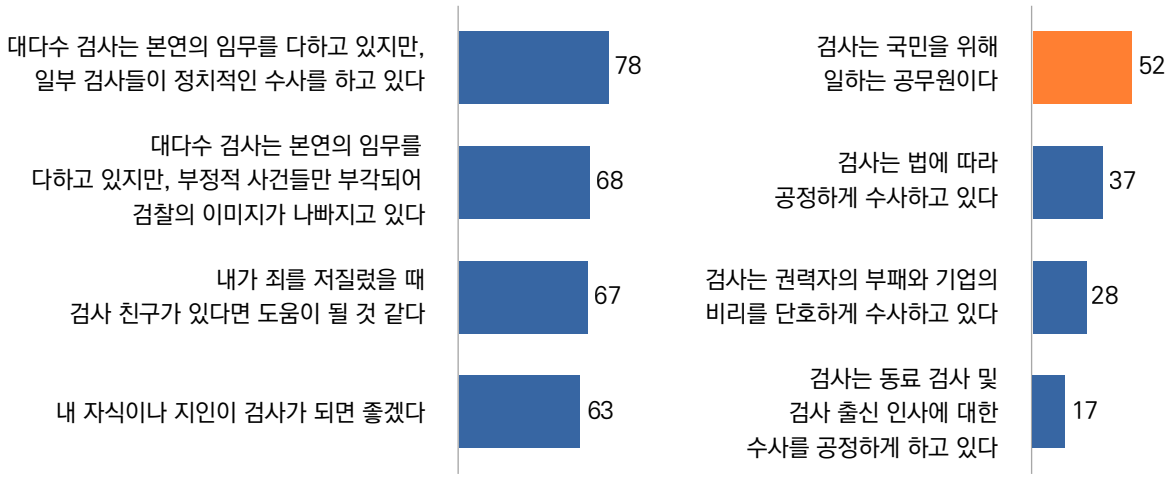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시사IN, '대국민 검찰 여론조사(842호)', 2023.11.07. (지역별/성별/연령별 기준 비례할당 추출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한국리서치, 2023.10.16.~10.18.)

◎ '검사는 국민을 위해 일한다'에 우리 국민 절반만 동의!

- 검찰 인식에 대한 여러 진술문을 제시한 후 동의 여부를 물었다. '검사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다'에는 절반 정도인 52%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검사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 '권력자의 부패와 비리를 단호하게 수사하고 있다', '동료 검사/검사 출신 인사에 대한 수사를 공정하게 하고 있다'에 각각 37%, 28%, 17%가 동의해 점점 질문이 구체화 될수록 동의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다만 '대다수 검사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일부 검사들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고(78%), 부정적 사건이 부각되어 검찰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다(68%)는 의견의 동의율도 높은편이었다.

[그림] 검찰에 대한 인식 ('매우+그렇다' 비율, %)



*자료 출처 : 시사IN, '대국민 검찰 여론조사(842호)', 2023.11.07. (지역별/성별/연령별 기준 비례할당 추출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한국리서치, 2023.10.16.~10.18.)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65호 (2023년 11월 3주)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 경제 전망입 등

◎ 사회 일반

고금리·불경기에 그들 먼저 쓰러졌다…'노인 파산' 역대 최다

중앙일보_2023.11.15.

노후 살 집 잘 고르려면... 전문가들의 추천 키워드는 '병품아'

조선일보_2023.11.19.

배달원서 가사·육아로…앱으로 파트타임 일하는 50대 여성

중앙일보_2023.11.16.

"간병인 주 6일·일평균 17시간 노동…71% 비인격적 대우 경험"

연합뉴스_2023.11.15.

항생제로 감기 치료 안 되는데…국민 74% 잘못 이해

중앙일보_2023.11.16.

점점 낮아지는 명품 소비 연령…10~20대에 처음 접한다

연합뉴스_2023.11.18.

'방뇨 논란' 중국 맥주 수입 43%↓…일본 맥주는 303%↑

연합뉴스_2023.11.16.

"외로움 싫지만 상처받기도 싫어" 인간관계가 어려운 '고슴도치딜레마'

동아일보_2023.11.18.

◎ 청년 / 청소년 / 아동

"'그냥 쉬었다'는 청년 57%, 경력개발 준비 중인 이직자"

연합뉴스_2023.11.15.

◎ 경제 / 기업 / 리더십

"직장인 3분의2 '노조 필요' 인식…노조 가입은 3분의1 불과"

연합뉴스_2023.11.19.

'임금 불평등' 다시 커졌다…"저임금 고령층 근로자 늘어난 탓"

연합뉴스_2023.11.15.

"직장인 10명 중 8명은 노동시간 축소나 현행유지 원해"

연합뉴스_2023.11.19.

2024년 한국경제 전망은 '내유외강'?

시사IN_2023.11.17.

나는 돈 있다, 고로 쓴다…MZ '짠테크' 때 지갑 여는 이 어른들

조선일보_2023.11.16.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국제 / 환경

미 싱크탱크 "中 굴기에 대한 우려 냉전 종식 이래 최고치"
중앙일보_2023.11.17.

기후책임도 양극화…"슈퍼리치 1%가 하위 66%만큼 탄소배출"
연합뉴스_2023.11.20.

◎ 건강

'고개 숙인 남성' 억울하겠네…정자 50% 감소한 이유 밝혀졌다
중앙일보_2023.11.15.

"외로움, 줄담배만큼 건강에 나빠"…WHO, '세계 보건 위협' 지정
연합뉴스_2023.11.17.

앉기보다 누워 자는 게 심혈관 대사 질환에 좋아
조선일보_2023.11.16.

국내 불면증 환자 70만 시대… 억지로 자려는 '강박'이 불면증 키워
동아일보_2023.11.11.

◎ 기독교 / 종교

기독교인 이용 매체 '유튜브 〉 인터넷·포털 〉 SNS·TV'
크리스천투데이_2023.11.17.

"목사님 설교에 감히" 교회에서도 피드백 문화 필요해
크리스챤타임스_2023.11.17.

교인, 다른 교회로 옮기는 이유 다양
미주 한국일보_2023.11.16.

◎ 기획기사 : 외국인 250만 시대, (한국경제)

1. 조선족 빈자리에 동남아인…서울 호프집 "직원 15명 전부 베트남인" _2023.10.25.

2. 외국인 근로자 수 1위 화성…"이 사람들 놓치면 공장 문 닫을 판" _2023.10.26.

3. 한국, 내년부터 '다인종 국가' _2023.10.27.

4. 제조업 인재 풍부한 인도…韓 외국인력 고급화 기대 _2023.10.30.

5. 이삿짐 인력 20%는 몽골인…성수기 일당 20만원 넘어 _2023.11.05.

6. "플랜트 공사엔 외국인 안돼"…하루 1만7000명 어디서 구해오나 _2023.11.10.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칠곡교회, 대덕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에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빛과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하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잠실교회, 장유대성교회, 정읍성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사랑교회(파주),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할렐루야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 후원 기관 |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I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안미션, 서대문ESF,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광주지식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마뜨, 메가리서치,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웨슬리퀘스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가나다 순)

| 후원 명단 안내 |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신규 후원 |

(주)시스코프(대표이사 여인갑), 내동교회(담임목사 천성환), 신용산교회(담임목사 오원석), 신일교회(담임목사 배요한), 아름다운교회, 고은영, 권석형, 권순민, 권진구, 금지영, 김근배, 김범진, 김석희, 김영민, 김요한, 김용석, 김은성, 김은혜, 김태우, 김현진, 박강석, 박종현, 박주영, 박준영, 박재우, 박형태, 변영광, 백윤정, 서경희, 서성민, 손경숙, 손세용, 신진섭, 신형민, 심재근, 원신앙, 오광렬, 윤병성, 윤평호, 이규복, 이보미, 이산성, 이상현, 이성수, 이성은, 이승룡, 이승주, 이영석, 이일영, 이주섭, 이준희, 이창준, 임민택, 임승한, 임양섭, 임창수, 장영래, 정기묵, 정대경, 정미정, 정석범, 정성조, 주학선, 천준영, 최성웅, 최영준, 최윤정, 최형규, 한동훈, 한세리, 한종수, 허 민, 홍익훈, 홍정호, 황홍배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 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송예슬, 한미경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횃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크리스챤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미주지역 :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책 구입 안내 |

정확한 조사 데이터에 기반하여 한국 교회 전망과 전략을 담은 '한국교회 트렌드 2024'가 출간되었습니다.

2022년 말부터 신학교 교수, 언론인, 현직 대형교회 및 소형교회 목회자, 기독교 문화 전문가, 조사 통계 전문가 등 한국교회를 다차원적으로 볼 수 있는 전문가로 TFT를 구성, 기획하고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조사와 집필을 주관하여 작년 [한국 교회 트렌드 2023]에 이은 두 번째 책입니다.

서적 소개 동영상　　책 구입 안내

목회데이터연구소

| 한국교회 '명목상 교인' 실태 및 신앙의식 결과 발표회 |

'명목상 교인'이란 교회의 등록된 멤버이거나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독교 교회 또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지만, 기독교인이 되는 것과 신앙, 신념, 교회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기독교 원칙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한국교회 최초로 교회 출석 개신교인의 신앙의 척도를 특정하여 파악한 '명목상 교인'의 실태와 신앙의식 결과를 발표합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공식 유튜브채널 온라인 동시 생중계

유튜브 채널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